

예산3.

98년 4차 총여학생회 집행부 회의 안건지 (98년 3월 4일)

1. 보고 사항

(문대)

- 1) 중앙운영위원회 보고 한총련관련 토론 (3월달-4월초) - 논의 일정을 잡 / 셋째주.
- 2) 각 국별 보고 3월에 하고자 하는 일도 함께 얘기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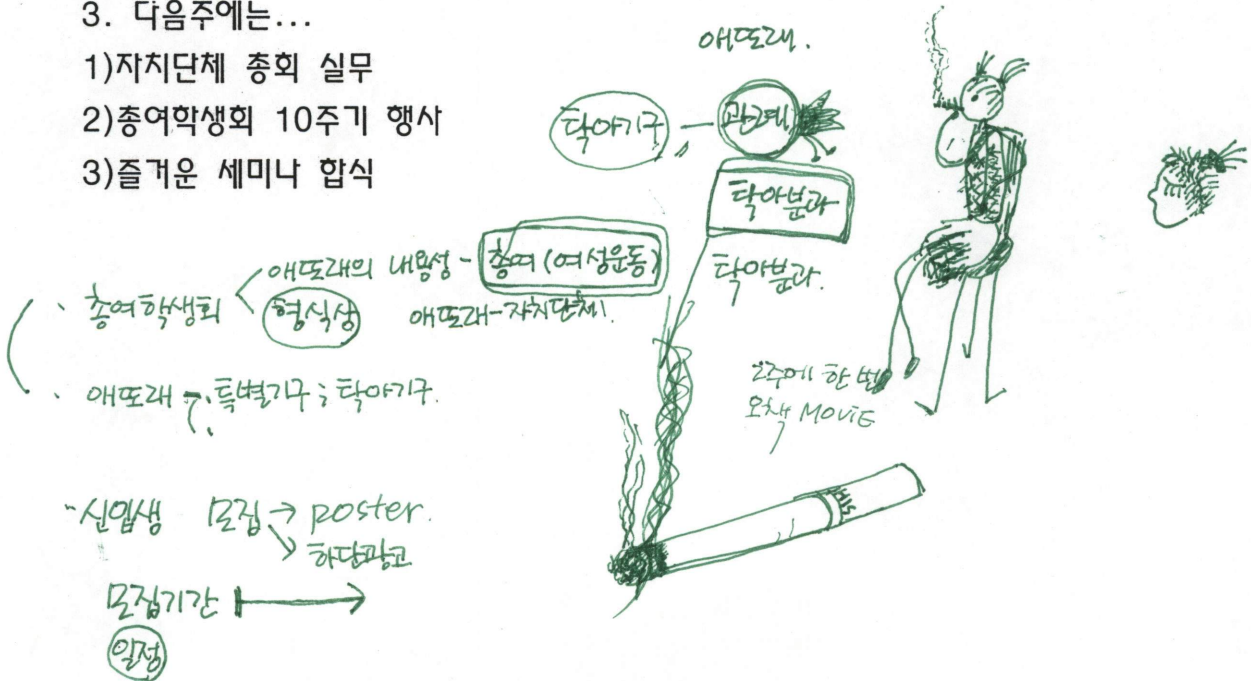
예산3 [성폭력 연대회의, 학칙제정
자주 가요!!]

2. 논의 사항

- 1) 1월달, 2월달 오티 결산서 공유
- 2) 오티 기획단의 평가 공유와 집행부 평가 → 성폭력 필요 / 뒷처리 미흡 / 프락 위험
- 3) 여성 연대회의에서 성폭력 학칙 가안이 나왔습니다. (별첨 문서 참조)
- 4) 지리한 예산 배정...
- 5) 자치단체 총회 제안 고민하기 (드물게도! 문서 발제)
- 6) 에포레 (자신이 받은 문서 갖고 있죠?) 자치단체
- 7) 3월 선전-다음주에 할 수도... 그렇지만 잠시 생각을...
- 8) 신입생 맞이 - 문화기획국
program - seminar. 새내기 모집 / 여성주의 seminar.

3. 다음주에는...

- 1) 자치단체 총회 실무
- 2) 총여학생회 10주기 행사
- 3) 즐거운 세미나 합식



자치단체 총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오늘이가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모처럼만에 문서발제를 하는군요... 푸하하.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써 봅니다.

일단 문제의식은 웬만하니 공유를 했다고 봅니다. 방학중 다섯개(비온드, 문대, 디 아더, 이과대, 동쪽)의 자치단체 테이블이 팡이 나면서부터였지요. 이런 식의 테이블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게 분명해지면서 자치단체 지원이 친한 단체 대충 돈 주는 게 아니라는 지점에 동의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일단 각 자치단체 대표들과 (동쪽은 오늘 대표를 뽑는다고 합니다.) 의논해 본 결과 총여학생회에서 자치단체 총회를 제안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인 것들이 얘기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1. 총회 준비모임의 제안

이것은 이과대 여학생회에서 제안한 것으로 일단은 그동안 모인 자치단체들이 총여학생회와 함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짜 들어가면서 전체 총회 제안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일단 총여학생회와 자치단체들의 준비 모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자치단체들과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program*

왜일?

2. 형식

1)총여학생회 사업 보고-너무 딱딱한가? 하지만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요. 현실적으로 총여학생회 사업은 지네끼리 돌아간다는 인상을 주기 쉽잖아요? 하고자 하는 일을 얘기하면서 자치단체들이 문제제기하고 제안하고... 대충 그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각 국에서 발제문은 써 와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2)예산안 보고-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써 봤는데... 자치단체 지원 문제도 있고 사업 보고엔 당연히 돈문제도 얘기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자치단체들 이야기- 이 부분은 총회 준비모임에서 얘기가 되어 하겠지요. 상황 보고도 있을 수 있고 뭐 하고 싶다든가 어려운 얘기라든가 기타등등.

4)자치단체들과 총여학생회 테이블의 정식화에 대한 제안? 토론?

3. 대상

지금 여성문제 자치단체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 하고자 하시는 분들... 이 정도? 약간은 활동하는 사람 대상이겠지요?

4. 일정

3월 18일이 총학생회, 단대 학생회 해오름식이고 3월 19일이 확대운위입니다. 좀 편하게 3월 20일이 토요일이라 좋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빠듯하면 뒤로 미룰 수도 있을 것 같고 준비모임에서 얘기가 될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날은?

총여학생회 예산 분배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안합니다.

수신 : 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

발신 : 여/성/주/의 제10대 총여학생회

총여학생회가 건설된지 10년이 되었고 여학생 비율이 이제 30%가 넘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여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학내 여성을 위한 물질적 기반부터 성차별에 대한 인식까지 ‘자동적으로’ 해소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아직도 여학생 수가 많아지면 교세가 약해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여성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시설이나 수업 과정은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총여학생회는 다른 학생회가 다루지 못하는, ‘여성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구입니다. 그럼에도 여학생 수의 증가와는 상관없는, 관성적인 예산 분배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예산 책정에 아무런 기준이 없다는 것 외에도 연세대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여성의 위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총여학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총여학생회가 총학생회의 특별기구라는 것은 총학생회의 산하라는 의미보다 총여의 특성상 ‘중복 기구’라는 것

▶충여학생회의 예산 분배는 아무런 기준이 없는 관성에 의존하고 있으며, 여학생 수 증가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방식이라는 것

관성화된 여학생회 예산 본배 방식을 깨고 보다 객관적인 방식을 제기합니다.

여학생들이 내는 학생회비 $\times$ 0% $\times$ 여학생 수 = 전체액수

이번 기회에 총여학생회의 위상에 걸맞는 예산 기준이 마련되어야 더 이상 예산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관마련

6대 5% - 1200만원

$$\boxed{307 \text{ 3천}} \times \frac{1}{100} = 2300 \text{ 2만원}$$

2400만원

여학생 7명 7명 7명

* 자치단체 지원 = 10,000

제 10대 총여학생회 1월달 결산서

작성일자 98.02.01

	항목	내용	금액	총액
수입	소득	이월금 √	5,286,000	
	대출금상환	개인(강지) √	370,000	
				5,656,000
지출	대출금	문대학생회 √	1,000,000	
		개인(장원, 강지) √	430,000	
	복사비	선금	30,000	
	통신비	나우누리 12월분	27,600	
		나우누리 1월분 선금 √	10,000	
		참세상	3,300	
	물품비	열쇠	90,000	
		컴퓨터 서적	41,000	
		탕탕이, 기타 √	33,300	
	MT비	방값, 식비 √	70,000	
	정기구독료	말 √	70,000	
		여성신문	50,000	
		IF √	30,000	
		한겨레신문	8,000	
	기타	수수료, 섭외비 √	2,300	
				(-1,895,500)
잔액			3,760,500	

*기타사항

√표시는 영수증 無

제 10대 총여학생회 2월달 결산서

작성일자 98.2.28

	항목	내역	금액	총액
이월금				3,760,500
수입	여학생처지원금		2,000,000	
	교비지원금		400,000	
				6,160,500
지출	하드웨어구입비	컴퓨터	1,652,000	(-1,665,500)
		택배비 V	10,000	
		이체수수료	3,500	
	외부지원금	대학생신문 V	50,000	(-110,000)
		또문캠프지원-정미선민 V	60,000	
	OT	OT결산서참조	1,409,400	(-1,409,400)
	복사비	선금	30,000	(-30,000)
	통신비	하이텔 1월분	17,830	(-17,830)
	물품비	열식복사 -3개	7,500	(-37,560)
		열식복사 -1개 V	2,500	
		충무물품-파일테잎..	10,560	
		CPU쿨러,마우스패드 V	7,000	
		사진값,디스켓 V	10,000	
	기타	오차	710	(-710)
				(-3,271,000)
잔액				2,889,500

제 10대 총여학생회 OT결산서

작성일자 98.02.27

항목	내역	금액
섭외비	김현미 - 그레이스상품권	200,000
	최은영 - 도서상품권	50,000
	황보령 - 현금 V	500,000
	좌담회팀(5명) - 도서상품권	50,000
	풍물패 - 현금 V	100,000
리플렛	B5, 1단 접지, 2000부	180,000
선전비		42,400
뒷풀이	고기집146000, 맥주61000	207,000
	2월 28일 2차선금 V	30,000
기기임대	무전기 4개	50,000
총액		1,409,400

*기타사항

V표이는 영수증 無

뒷풀이 비 중 28일 2차선금은 2월 결산에 첨부